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1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반도체, 또 반도체..S&P500·나스닥 최고가

- 미국증시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나스닥 +1.7%, S&P500 +0.84%
- AI·반도체 랠리 지속..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51% 급등
- 4월 비농업 고용 '예상 상회', 임금 상승률은 '예상 하회'

Summary

미국증시 상승: S&P500·나스닥 사상 최고가 또 경신

5월 8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4거래일만에 반등했지만 견조함에도 인플레 우려는 덜어준 고용 지표, 그리고 AI발 랠리를 이은 반도체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뚜렷했던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지만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02% 상승한 49,609.16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84% 상승한 7,398.93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1.71% 상승한 26,247.076에 거래를 마침. 이로써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 중소형주 지수 러셀2천 지수도 0.76%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2주 연속,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었음. 다우지수의 주간 수익률은 0.22%에 그쳤지만 S&P500 지수는 한 주간 2.33%,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무려 4.51% 상승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64% 상승한 17.19에 마감.

(다우 +0.02%, 나스닥 +1.71%, S&P500 +0.84%, 러셀2000 +0.76%)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미국-이란 긴장 고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며 휴전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반등.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 항구로의 진입을 시도한 이란 측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 전일에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이기도. 시장은 양측의 종전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협 봉쇄와 이 지역에서의 교전이 반복되며 결국 한 달 전 체결된 휴전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충돌에도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은 "봉쇄는 전쟁 행위이며 폭격에서 봉쇄로 전략을 바꾼 것일 뿐, 평화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한편 현지시각 일요일(10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이 보낸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읽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으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

다고 밝혀. 이 게시물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47년간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며 맹비난하기도. 한편 이란 국영 타스님 통신은 앞서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음.

모건스탠리 "석유 재고 사상 최고 속도로 소진 중"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지 석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5일 사이 세계 석유 재고가 하루 약 480만 배럴 감소했다고 추산함.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에서 분기 기준 이전 최대 감소 폭을 크게 웃도는 사상 최고 속도의 석유 재고 소진으로, 글로벌 석유 재고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함. JP모건체이스는 이에 대해 해협이 재개통 되지 않을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석유 재고가 이르면 다음달 초 '운영 스트레스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과 필리핀 등의 아시아 소국들의 경우 이르면 한 달 안에 공급이 임계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전쟁이 끝난다 해도 페르시아만 산유국의 생산과 해상 운송이 단기간 내 정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통 시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재고가 임계 수준에 근접할수록 가격 급등 압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한국도 미국도 '반도체'가 주인공

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증시 뿐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주도. 올들어 샌디스크 주가가 550% 이상 폭등했고, 씨게이트와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도 각각 150% 내외 급등. 최근 1년으로 시계를 넓히면 샌디스크는 4,000% 이상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700% 이상, 인텔은 480% 이상 상승했음. 특히 최근 주요 기업들의 오름폭이 더 확대된 가운데 S&P500 에 포함된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난 6주간 약 3조 8천억 달러 증가함. 이날도 인텔이 애플과 칩 제조 예비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에 14% 급등했고 마이크론도 15% 이상 상승. AI 기업들의 제품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실적이 지속 성장하며 주가를 견인하는 흐름. 바클레이즈는 최근의 반도체 랠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과격한 움직임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고객에게 보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의 반도체 랠리에 대해 1분기 실적과 안정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한 열풍이라는 점에서 2000년대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고 진단. 다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말은 늘 위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켜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도.

고용 증가는 '기대 이상', 임금 상승은 '기대 이하'

경제지표로는 4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달 대비 11만 5천명 증가해 3월과 비교해서는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시장 예상치 6만 2천명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됨. 업종별로는 보건 의료, 운송 및 창고, 소매업 부문의 증가가 비농업 고용 증

가를 견인했으며 연방 정부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 정보 부문도 감소. 4월 민간 비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달 대비 0.2% 상승한 37.41달러로 집계. 이는 0.3% 상승을 점쳤던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것. 기대 이상의 고용 증가와 기대를 하회하는 임금 상승은 안정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 신호와 그럼에도 제한적인 인플레 우려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

미시간대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48.2로 전달 대비 3.2% 하락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 주요 구성 항목 중 현재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전달 대비 4.7포인트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 다만 향후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나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48.5로 0.4포인트 상승. 기대 인플레는 대체로 하락. 5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전달에 비해 0.2% 포인트 하락했으며 5~10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0.1% 포인트 하락.

특징종목

인텔 중심 반도체주 급등..반도체지수 5.51% ↑

전 거래일 쉬었던 반도체주가 다시 화려하게 부상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함. 특히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GPU에 집중됐던 AI발 반도체 수혜의 범위가 최근 AI 추론을 위한 CPU와 메모리 반도체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엔비디아(+1.75%) 중심의 반도체주 강세가 인텔(+13.96%), 마이크론(+15.49%)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

특히 이날은 애플(+2.05%) 기기에 들어가는 일부 반도체를 인텔(+13.96%)이 생산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에 양사가 도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인텔이 급등. 양사는 1년 넘게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합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여름 인텔에 대한 약 9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보유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를 비롯,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과 잇따라 접촉, 인텔과의 협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짐. 실제 엔비디아는 지난해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난달에는 머스크와 인텔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테라팹' 프로젝트도 공개한 바 있다. 한 때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음에도 기술 개발 실패와 경영 혼선 등으로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인텔이 지난해 립부 탄 CEO 취임 이후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

이번주 사상 처음으로 8천억 달러를 돌파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5.49%)의 시가총액은 이날 급등으로 8,500억 달러에 육박함. 시장이 주목하는 마이크론의 핵심 동력은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호퍼 GPU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으로 현재 HBM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 마이크론은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소수 업체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의 생산 물량이 이미 전량 매진된 상태라고 밝힘.

이 두 종목 이외에도 AMD(+11.44%), 퀄컴(+8.17%), 샌디스크(+16.60%), 램리서치

(+2.6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6.04%), 웨스턴 디지털(+3.47%),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5.21%) 등 밸류체인 전반이 강하게 상승. 이번 분기 50% 가까이 상승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이 날 5.51% 급등. VanEck 반도체ETF(SMH)는 이날 4.9% 상승해 사상 최고가 경신.

전통 산업, 경기 순환주는 약세

다만 전통 산업, 경기 순환주는 약세로 이날 다우지수 내 맥도날드(-2.80%), 세일스포스(-2.43%), 홈디포(-0.85%), JP모간체이스(-1.36%) 등이 약세를 보이며 다우지수는 오름폭이 제한됨. 이들 업종군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공급 충격 여파를 꾸준히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 물류 압박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를 경우 기업 실적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시각.

이외 특징주

모바일 마케팅 회사 앱러빈(-6.08%)은 전 거래일 실적 호조에 6% 이상 급등했지만 이날 차익 매물 출회되며 약세 전환.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메르카도리브레(-12.70%)는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급락. 특히 영업 마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통신 기기와 비디오 보안 시스템 제조사 모토로라 솔루션스(-11.36%)는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넘어서지 못한 가운데 급락.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26.58%)는 실적이 기대를 웃돈 가운데 미국의 주요 프런티어 AI 모델 제공업체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7년간 18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히자 주가 급등.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IREN(+7.65%)엔비디아와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계약을 발표한 가운데 상승.

우주항공 업체 로켓 랩(+34.22%)은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수주잔고가 전분기 대비 20.2%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급등. 회사는 모티브 스페이스 시스템즈 인수 계획도 발표했으며 3건의 HASTE 극초음속 시험 발사와 관련,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혀. 여기에 익명의 고개9r과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핀테크 플랫폼 블록(+6.72%)은 2분기와 연간 조정 이익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상회해 강세.

음료 업체 몬스터 베버리지(+13.58%)는 시장 예상을 훌쩍 넘어선 1분기 매출과 이익을 공개한 가운데 급등.

네오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11.40%)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던 가운데

급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하락

유럽 거래에서부터 미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 영국 집권 노동당이 지방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키어 스타머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에 영국 국채 길트 금리가 하락(가격 상승)한 영향으로 미 국채금리도 하락. 길트 10년물 수익률은 이날 4.7bp 하락했고 재정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30년물 수익률은 7bp 가까이 급락.

미국장에서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자 미 국채금리는 반등해 10년물 기준 4.4%까지 순간적으로 상승하기도. 고용 수치가 기대보다 좋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달 대비 0.2% 상승하는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직접적 인플레이션으로의 연결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는 해석 속에 금리는 이후 하락으로 다시 방향을 잡음.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결과 이란 전쟁 이후 크게 상승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 조사에서 일단 꺾인 것으로 나타난 점도 국채금리 하락에 힘을 보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전달 대비 0.2%p 하락했고 5~10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4%로 0.1%포인트 하락.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2.6bp 하락한 3.893%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8bp 하락한 4.365%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2.2bp 하락한 4.947%를 기록함.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다소 높은 70% 중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 중반대로 다소 낮아졌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를 살짝 웃도는 수준.

파운드·유로 강세..달러 인덱스 하락

달러는 유로와 파운드화가 각각 강세 요인을 반영한 가운데 상대적 약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9~11일 휴전을 한다며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해. 이에 국제유가는 오름폭을 줄였으며 유로도 이와 함께 상승폭 확대. 유로-달러 환율은 이날 0.399% 상승해 1.178달러를 기록.

영국에서는 지방 의회 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참패. 다만 그럼에도 상대적 건전 재정을 강조해온 키어 스타머 총리가 “나는 5년 임기를 수행하도록 선출됐고, 그것을 끝까지 해낼 생각”이라며 사임을 거부. 스타머 총리의 대안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파운드화 가치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라 스타머의 총리직 유지 소식은 파운드화 강세 요인. 파운드-달러 환율은 0.490% 상승한 1.362달러를 기록.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97.891로 전장 대비 0.315% 하락함.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일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1,471.70원 대비 9.40원 하락한 1,462.30원에 마감했으며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00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9.00원 하락한 1,461.70원 기록.

국제유가 4거래일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반등.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교전 여파로 WTI는 아시아 장 초반 급등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 일축하며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자 유가는 점차 오름폭을 축소, 유럽 거래와 뉴욕 오전 중엔 내림세로 돌아서기도 함. 오후 들어서는 재차 1% 이상 반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잠시 휴전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자 오름폭을 축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164% 상승한 배럴당 95.42달러에 마감. 지난 4일 이후 처음으로 상승. WTI는 주간으로는 6.4%하락, 3주만에 하락 반전함.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0.73% 상승.

국제 금값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여부에 주목하며 상승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을 반영해 상승 폭은 제한적.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42% 상승한 온스당 4,730.70달러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